

광주시, 고용안정 위한 '광산일드림센터' 문 열어

자동차·가전산업 위기근로자 발굴과 근로자 취업지원 등 역할 북구 취업지원센터에 이어 기초단위 2번째 취업지원센터 개소 광역센터 연계...미래 신 성장산업,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 기대

광주시는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광산 일드림센터(이하 광산취업지원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고용안정선제 대응패키지사업(고용노동부 공모, 총사업비 483억원)'의 일환이다. '고용안정선제 대응패키지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 고용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가전기업 위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양성, 기업 지원, 취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광주시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고용환경개선, 이·전직 전문 취업지원 서

비스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위기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인공기능·공기산업·친환경자동차 등 광주시 미래 성장산업 인력으로 전환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광산취업지원센터는 자동차·가전기업 위기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취업상담을 통한 1:1 맞춤형 전환배치 ▲구인·구직·직접일자리 연계 등 고용서비스 제공 ▲위기근로자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올해 취업상담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산취업지원센터(광산로 72)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산취업지원센터(062-941-530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광산취업지원센터 외에도 2021년 광역 취업지원센터(상무지구), 지난 7월 '내일전환아카데미'와 '북구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열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산업전환기에 기업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근로자들이 신 성장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광산일드림센터가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일자리 허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주시는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광산 일드림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은 2025년까지 지역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가전기업 위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양성, 기업 지원, 취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광주시 제공

현대차, '아이오닉 6' 사전계약 첫날 3.7만대

국내 완성차 모델 역대 최다 기록 경신



현대자동차는 22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 아이오닉 6의 첫날 계약 대수가 3만 7천 44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현대자동차는 22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 아이오닉 6의 첫날 계약 대수가 3만 7

천 44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보유한 국내 완성차 모델 역대 최다 첫날 사전계약 대수 2만 3천 760대를 불과 1년 반 만에 1만 3천 686대 초과 달성한 것으로,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의 계입체인지로서의 고객 기대감을 충족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6의 혁신적인 내·외장 디자인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력성능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주행가능거리, 새로운 전기차 경험을 선사하는 신기술 등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오닉 6의 뛰어난 상품성을 쉽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모터쇼를 통해 처음 공개된 아이오닉 6는 ▲6.2km/kWh의 세계 최고 수준 전기소비효율(18인치 휠, 스탠다드 2WD 기준) ▲산업부 인증 기준 524km에 달하는 넉넉한 1회충전 주행가능거리(18인치 휠, 롱레인지 2WD 기준) ▲현대차 역대 모델 중 최저 공기저항계수 0.21 ▲매끈한 유선형 외장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으로 최적화된 안락한 실내공간 ▲차와 사람이 교감하는 다채로운 라이팅 기술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최첨단 안전·편의사양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할 모델로 주목받았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전 세계 주요 매체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

토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는 "공기역학적으로 뛰어난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기차는 바닥에 깔린 배터리 때문에 차체를 낮게 만들거나 전면 부 면적을 줄일 수 없다. 반면 아이오닉 6는 외장형 액티브 에어플랩 등 다양한 공력 분야 기술들이 대거 적용돼 양산차 중 최고 수준의 공기역학 성능을 달성했다"는 평을 남겼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는 "몇 년 전, 현대차는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영감을 반영한 프로페시 콘셉트카의 매끈한 디자인으로 미래를 예언했다"며 "바로 그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한 양산차인 아이오닉 6는 복고적인 모습과 미래적인 모습을 명

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호평했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드(Auto Bild)' 역시 "아이오닉 6가 긴 휠베이스를 갖췄다는 것은 실내 및 뒷좌석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경썼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누에고치 콘셉트라고 언급한 내용처럼, 탑승자들은 아이오닉 6의 실내에서 거실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며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남겼다.

한편, 아이오닉 6의 가격은 전기차 세계 해택 후 기준으로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천 200만원, 롱레인지 모델 ▲익스클루시브 5천 605만원 ▲익스클루시브+(플러스) 5천 845만원 ▲프레스티지 6천 135만원 ▲E-LITE 2WD 5천 260만원이다. (* 개별소비세 3.5% 기준)

/이문수 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7월 OPEN

39층 새로운
컬처라이프의 중심.

완벽한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누리다!

중흥S-클래스 문화전당 & 층장
[시공예정사 : 중흥토건]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84㎡A·B, 113㎡

문의 062. 351.9999

시행 (가칭)The50센트럴 금동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코리아신타(주) 업무대행사 데에이치산업개발

※ 상기 부동산은 사업승인 도장을 바탕으로 표시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층급구 디자인, 조경사계, 외장재, 창호형태, 외장재 및 마감, 분양계획, 시공명 등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례할 수 있습니다.